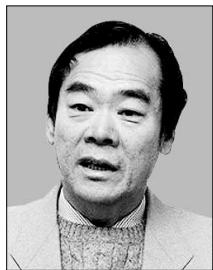


“자살 그리고 살자” 그냥 자살이란 글자를 뒤집어 본 것이다.

삶과 죽음이 곧 이 뒤집음과 같은데 죽고 살이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중얼거리지만 우리 같은 범속한 사람에겐 죽음과 삶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진다. 요즘은 들어 자살이란 용어가 대중매체를 통해 빈번하게 쏟아지고 있다. 자살하는 이유들도 다양하지만 자살하는 연령 또한 점점 어리러지기 시작한 것도 문제다.

자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가 아닐까 싶다. 하나는 “자살이라니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지” 불문 자살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자살을 택했을까” 이 말 또한 자살에 대한 연민의 정을 나타낸 말일 것이다. 보는 이에 따라 이런 상반된 느낌을 표현하지만 바탕에는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자살 사이트라는 것도 인터넷에 있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자살을 예방하는 곳도 있고 자살을 돕는 사이트도 있다. 예방하는 사이트는 “죽을 용기로 살기를” 자살을 돕는 사이트는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라며 도움을 주는 모양이다. 우리 사회는 자살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행위는 아니다. 불기에서도 생명의 존엄한 가치와 유아독존의 자존감을 설파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



불자 세상보기

이근후 열린마당 클리닉 원장

자살, 뒤집으면 ‘살자’ 인걸

세다. 이런 자세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왜 그들이 자살에 이르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자살로부터 삶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화살 맞은 사람을 두고 왜 무슨 화살에 라는 다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살은 최악의 살인이다’ 라거나 ‘자살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행복하다’는 말장난으로 죽은 자의 마음에 또 한번의 상처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곤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 살아있는 사람 마음대로 죽은 자를 단정하

다. 그렇게들 단정해야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까.

자살을 미화하거나 죄악시키거나 어느 것도 자살자의 진정한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산자가 해야 할 일은 화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뽑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상처를 아리게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몫이 산자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이들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히 불자는 자살하는 사람 자살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용기를 다시 찾

게 할 방안을 찾는 데 마음을 써야 한다.

이런 방편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편이 있고 또 사회나 국가가 대신해야 할 방편도 있다. 자살 소식이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표하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고 사는 속성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불자다. 이런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살자나 산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편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할 절명한 때가 된 것 같다.

어떤 방편이 공론화 되어 창출이 되든지 간에 우리들이 간과해선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자존감이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겸허하게 높이는 자세 바로 그것이 불성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불성의 크기와 무게는 서로 다를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갖는 불성을 진정한 자신의 몫으로 키워 나가도록 돕는 그런 방편은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서 필요한 방편이다.

모든 원인이 자살자의 몫이 되어서도 안되고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서도 안 된다. 죽은 자나 산자의 공통된 몫으로 우리 마음 속에 처절하게 남을 때 생명의 존엄과 자존감이 불성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새해엔 우리 모두의 몫으로 생각하는 한해를 삼아 보자.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는 화합과 자비의 상징이여야 한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교육의 장을 만들어 원력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운영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많은 불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많은 불자들을 양성한 교육기관으로 1991년에는 조계종 포교원의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내실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로써 불교가 기록종교나 미신이나 하며 무지한 이들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신앙의 바탕 위에 올바른 교리체계를 익혀 참여한 불교수행의 길을 연마할 수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설립되면서 불자들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부산불교대학 사태를 보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러한 역할을 개척 정신으로 원력을 모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부산불교의 큰 희망을 일구어 온 공헌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학사 이전이라는 상황에서 운영권을 놓고 운영위원장과 학장간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제2차의 개입으로 더욱 난감한 상황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사운의 모습이다. 관련자의 면모를 보면 부산 불교계의 상징적 어른들이다. 다들 잘하려는 의욕이 앞서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지만 결국에는 탐욕심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불교계의 시선을 인식해 편견을 방화하(放下)하고 심기일전하는 화합의 장을 열어 주기 바란다.

불교는 인욕과 화합이 가장 위대한 승가상이다. 기자회견도 할 것 없고 대외적이 발표도 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놓고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내부적으로 원만한 타결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종단에 등록된 신도교육기관이라고 종단에서 잘 보살피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중재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교를 신행하고 부처님의 공부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법산(동국대 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약성리플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 인맥의 친척 사이에 서로 공격하고 사랑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내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말과 언어를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정>

인터넷상에서 피리말을 달수 있는 게시물에 피리말을 나쁘게 올리는 것을 뜻하는 악플(악성리플)이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89년 대학생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씨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최근 검찰이 14명을 악성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기소된 악플 행위자들이 대부분 10대가 아니라 40~60대이고 금융기관의 중견 간부, 대기업 회사원, 전직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악플이 생겨난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아무에게나 나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번에 검찰이 악성기소를 한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욕설, 저주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일종의 경종인 셈이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도 많지만 실명제 등 해결 방안이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사람은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물질의 나눔이요, 둘째는 좋은 말이요, 셋째는 서로 이롭게 함이요, 넷째는 협력이요,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이다.” <장이함경>

천수경의 첫 구절은 ‘정수업진언’이다. 입으로 지은 죄를 참회한다는 내용이다. 허물며 악의적으로 남의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겁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두식(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자정치인 더 늘어나야

불자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 준비가 늘고 있다는 ‘현대불교’ 562호 신문을 읽고 상당히 공감을 느꼈다. 지역 곳곳에서 우리의 생활과 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불자 정치인들을 좀더 많이 소개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치라는 것은 대중의 의지를 모아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교계도 스스로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21세기는 상생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 화두다. 지역과 사회, 세 계층이 하나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묶어내는데 불교만큼 이상적인 교리를 가진 종교가 없다. 이를 실현시킬 불자 정치인이 많아야 할수록 우리사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흐름은 국민자치와 참여정이다. 전통과 문화 마인드를 가진 불자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

덧붙여, 이제는 더이상 극단적 종교편향을 일삼는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불자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윤기(인천 서구 백석동)

김중국 해인사 참배 기사를 보고

인기가수 김중국씨가 해인사를 찾았다고 참배했다고 한다. 연예인이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뉴스거리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사회 현상들을 반추해보면, 유명연예인에 열광하고 그가 입었던 옷이나 악사사리가 불타나게 팔리는 세상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우상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따르는 경향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예인이 사찰을 찾고, 불교 신자임을 알린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간접적이지만 불교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 불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년 포교에도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이영애씨가 마곡사를 방문한 기사를 현대불교신문 1면에서 본 기억이 있다. 찾아보면 불자연예인이 의외로 많다. 불자 연예인을 발굴하고 그 활동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도 신세대 포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민호(충남 공주시 서곡면)

경인방송 특정종교 주도 안된다

경인지역 민방인 경인방송의 새 사업

자 선정이 유예됐다. 특정종교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굿터비 컨소시엄의 상식 밖 언행에 불교계의 우려가 컸던 탓에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던 차였다.

이런 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비록 타종교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자상과 방송을 인수하기 위해 인적·재정적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 속에서 부조전 반대의 목소리만 앞세운다는 것이 자칫 남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옹졸한 모습으로 비쳐 질지 모른다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굿터비의 주주 구성에서 미디어 관련 회사는 기독교방송 1곳뿐이라 사실상 특정종교의 방송이 될 것은 자명하다. 아직도 종교 연구수에 비해 불교방송과 기독교방송 전파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너무나 당연하다. 타종교와 불교계가 대등한 수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자 선정이라면, 특정종교의 민방인수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앞서 그동안 불교계는 무얼 하고 있었나하는 철저한 반성도 필요해 보인다. 불교계가 남의 발목 잡기만 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지우고 스스로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나그네(롯데뉴스)



진제대선사의 법문집 신판 禪 백문백답

한 몽둥이 휘두르니 비로정상 무너지고 벽력같은 일 할에 천만 같등 흔적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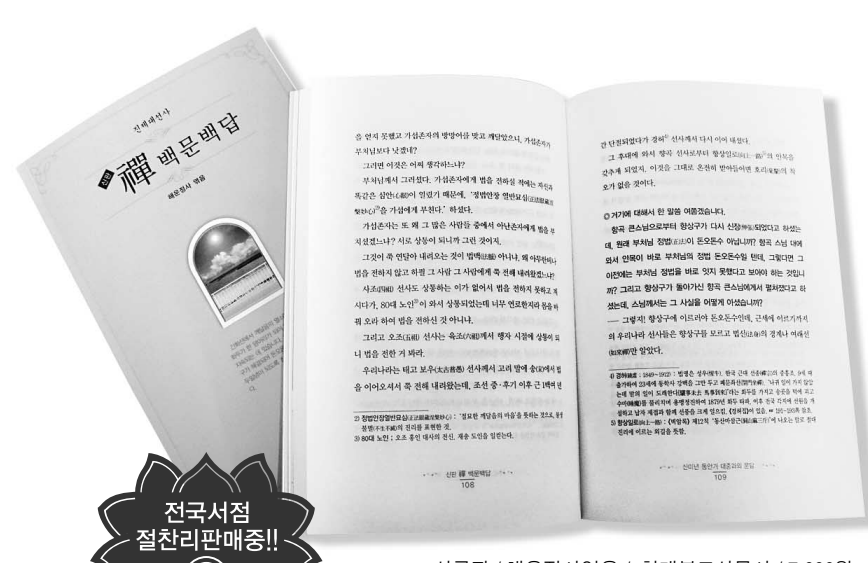
현재 조계종 원로위원과 동화사, 해운정사 조실을 맡아 수많은 운수남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진제스님의 법문집 신(禪) 백문백답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에는 ‘동화사 기초선원 죄담법문(1997년)’ ‘설선대법회 회향법어와 무차선법문(2005년)’ 등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던 스님의 법문과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는 대중들에게 한치의 막힘없이 답해주는 스님의 법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려는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평소 일반대중에게 걸림돌이 되고 화두가 되었던 질문과 스님의 답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송담(인천 용화선원 선원장) 남진제'로 불릴 만큼 당대 최고의 선사(禪師)로 존경받는 진제스님의 신판 신(禪) 백문백답!

이제 온라인 여시아문과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서점 질찬리판매중!!

신국판 / 해운정사역음 / 현대불교신문사 / 7,000원